

초등학교 사회과에서의 안전·방재교육의 탐색: 일본 소학교 사회과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심민수 · 남상준

서울 신흥초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I. 서론

2014년 11월 11일 교육부는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추진 배경으로는 2014년 국민을 슬프게 하였던 세월호 침몰사고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의 원인이 되어 온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국가혁신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4).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이 희생되는 사건과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회전체가 반성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에 따른 안전 교육은 39개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교과에서는 주로 체육, 도덕, 저학년 통합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교통안전 또는 학교안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2014년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15년 고시/18년 적용) 시 초등 1~2학년은 독립된 안전 교과 신설을 검토하고 초등 3학년~고등 3학년은 체육, 기술·가정, 과학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위 신설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안전 교육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안전 교과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 과목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교과 신설은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현재의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시민성의 논의에 앞서, 안전의 확보는 2014년 5월 23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최종보고서(2014)에서 신설하기로 한 안전의 권리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문위는 헌법 개정안에서 현행 헌법 제 34조 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되는 안 제 14조 ‘모든 국민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역시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에서 안전교육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앞서 박인현과 김기식(1999)이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실시하여야 할 안전 교육 내용의 체계화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안순화(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학교안전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이 두 연구 외에는 사회과와 안전교육의 직접적인 관련에 대하여 다룬 것은 없다. 다만 서재천(1995)은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사회과 수업논리의 탐색에서 학생의 의사결정 능력 신장을 위하여 당시 일본의 의사결정 능력 신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고니시 마사오(小西正雄)의 제안형 사회과 수업론을 소개하고 수업 사례로서 안전·방재교육 관련 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4학년 ‘나는 현장 소방대장’ 수업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안전·방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 연구는 아니었지만, 화재의 예방과 관련된 단원에서 실제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난대비 교육과 관련하여 이민부(2014)는 재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국토 지리의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리과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OECD 30개 회원국 중 25개국의 10만명당 1~14세 어린이의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8.7명으로 인근의 일본의 4.6명에 비하여 1.89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08). 이는 일본의 1991-1995년의 사망률과 비슷하다.

일본은 1950년대 말 고도의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공장 폐수로 인하여 발생한 미나마타병 등의 발생 이후 안전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박인현과 김기식, 1999). 특히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래 안전교육에서도 방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화되었으며(日本社会科教育学会, 2012), 다양한 재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환경, 방재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방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장은숙, 2011).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으며 역사적·사회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과에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안전교육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학교 안전교육과 방재교육

1. 일본의 안전·방재교육

日本社会科教育学会(2012)에서는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스스로의 행동이나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학교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지도나 피난 훈련 외에 교과학습이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 내에서 안전·방재교육의 추진에 있어 학교 급에 따라 비교적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소학교

는 학교급 뿐 아니라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중점으로 지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文部科学省, 1996). 저학년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부모 등 근처에 있는 어른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학년에서는 재해 때 생기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알고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고학년에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에 의한 재해·재난이 많은 일본에서 갖는 안전교육의 의미는 재해·재난의 예방과 관련된 방재교육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방재교육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文部科学省, 1996). 학교에 있어서 방재교육 등은, 다양한 재해 발생 시에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준비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荒谷 美津子 外 8人, 2012). 文部科学省(2011)의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방재교육·방재관리에 관한 유관자회의」 중간의 정리에 따르면, 어린이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며,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文部科学省(2012)에서는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요구되는 역할의 첫 번째로 각 교과, 도덕, 특별 활동,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등 학교 교육 활동 전체에서 실시하는 종합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 자신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실천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i) 일상생활에 있어 사건·사고, 자연재해 등의 현상, 원인 및 방지방법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하고 현재나 미래에 직면하는 안전의 과제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판단에 기초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ii)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나와 다른사람의 안전을 배려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스스로 위험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iii)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의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에 언급한 사항을 발달 단계에 따라 학생의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예측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육성이다. 각종 사건·사고에서 드러나듯이 안전·재해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 때 필요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지식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순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임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에 있어 안전교육을 다룬 荒谷 美津子 外 8人(2012)이 언급한 동일본대지진 후의 안전교육 과제는 안전·방재교육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발생했던 동일본대지진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희생도 많았다. 또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부터 여러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신수단이 단절되어 보호자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것, 어린이의 인도에 대해서 피난소의 대응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겪어보기 전에 예측하여 교육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안전과 방재에 관한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올바른 판단 아래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소학교 사회과에서의 안전·방재교육

사회과에서는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의 대책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되며, 소학교 교과 학습 내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3단계로 나누어, 생활과, 도덕, 특별활동, 사회과, 이과, 가정과, 체육과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장은숙, 2011). 사회과에서 안전·방재교육이 가장 중시되는 것은 소학교이다. 1955년판의 학습지도요령 이래, 지역사회에 있어 재해·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그와 관련된 기관의 활동이나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리·노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학년 사회과의 학습내용의 커다란 기둥의 하나가 되었다(日本社会科教育学会, 2012). 소학교학습지도요령 사회편(文部科学省, 2008)에서는 안전·방재교육과 관련하여 3·4학년의 목표에서 지역의 산업과 소비생활의 모습,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과 양호한 생활환경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 활동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갖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 있어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관해, 다음의 것」을 견학, 조사하거나 자료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계 기관의 활동과 그 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의 공리와 노력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지침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였다.

소학교에서는 고학년보다 중학년에서 화재나 교통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리나,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리와 노력을 다루는 것이 학습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소학교 3·4학년에서 안전·방재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에 따라 학습의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안전교육의 4가지 원리(이명선, 2001) 중 안전 교육은 학습 대상자가 속한 지역의 지형적 특징,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적 특수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역학습을 지향하는 3·4학년의 사회과에서 다루기 알맞은 것이다. 결국 안전·방재를 위한 교육도 지역마다 같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사회의 방재 활동에 관한 학습을 하는 3·4학년 사회과에서의 안전·방재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일본 사회과 안전·방재교육의 한계점과 과제

소학교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3학년 및 4학년의 내용 (4)에서는 지역사회에

-
- 1) 가. 관계기관은 지역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재해와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나. 관계 기관이 상호 연계해서 긴급히 대처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
 - 2) 안전교육의 원리로는 ‘일회성의 원리’, ‘지역적 특수성의 원리’, ‘인성교육의 원리’, ‘실천교육의 원리’의 4가지 있다.

있어서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관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日本社会科教育学会(2012)에서는 다음 3가지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내용을 다룸에 있어 재해는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중에서 하나를, 사고는 교통사고 등의 방지와 방법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풍수해나 지진을 주제로 하는 수업 실천 보다는 학생들이 떠올리기 쉬운 화재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고에 있어서도 방법에 관한 수업실천 예보다는 교통사고의 방지에 대해 다루는 등 실제로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 절에서 분석할 3종 대상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재와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는 일본에서 지역에 따라 학습 대상이 되는 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마다 중요성이 높은 재해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난에 있어 화재가, 사고에 있어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2014)에 따르면 화재의 경우 자연 재난이 아닌, 인적 재난으로 다른 재난에 비하여 예측·예방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풍수해, 설해, 가뭄, 낙뢰 등 자연 재해에 비해 지역에 따른 편차가 없으며 사회 현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떠올리기 가장 쉽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고를 다룸에 있어 방법보다는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2013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3)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 10~20세의 사망원인 3대 사인으로 꼽히는 것이 운수사고 임을 감안한다면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추정 가능하다.

두 번째로, 보건체육과·이과·사회과 등의 복수의 교과가 연계해서 학교전체에서 대처하는 활동을 안전·방재교육으로 두고, 사회과가 어떠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방재활동을 생각해본다면, 자연재해의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회과로서 어떤 정보까지 자연재해 그 자체의 이해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회과에서는 「위험을 예측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 가능한 능력」의 육성 그 자체에 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학교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08)의 학습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능력보다는 주로 화재나 교통안전에 있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해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도 이러한 능력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일본의 3가지 과제는 만약 우리나라 사회과에서도 안전·방재교육을 강화하게 된다면 고려해 볼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안전교육이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개인의 상해사고부터 자연에 의한 재해까지 고려될 수 있다(박인현과 김기식, 1999). 따라서 안전·방재교육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학습 대상이 되는 사고·재해의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교육에 있어 사회과만의 특색을 살리되 전체 안전교육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통합해서 다루며, 자연 재해 자체의 이해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야 하는 문제와 안전·방재교육에 있어 사회과의 역할이 지역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가 혹은 위험을 예측해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인가 등에 중점을 둘 것인지도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광범위한 안전·방재교육의 관련 내용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무리가 있기에 추후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Ⅲ. 일본 사회과 안전·방재교육 관련 단위 분석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소학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일본 3·4학년 사회과 교과서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8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공시하여 사회과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천호성, 2011). 초등 사회과 교과서가 국정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현재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5개의 출판사(2011년 기준: 東京書籍, 日本文教出版, 光村図書出版, 教育出版 등)가 있으나 그 중 東京書籍, 日本文教出版, 光村図書出版(이하 동경서적, 문교출판, 광촌도서로 표기)의 것을 선정하여 살펴보되 구체적인 내용은 광촌도서의 단원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石毛直道 外 9人(2011), 「社会 3·4下」, 光村図書出版.

北 俊夫·佐藤学·吉田伸之 外 38人(2011). 「新しい社会3·4下」 東京書籍.

加藤幸次·明石要一 外 33人(2011), 「小学生の社会 3·4上: わたしたちのすむ土地」, 日本文教出版.

2. 소학교 사회과에서의 안전·방재교육 단위 분석

소학교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의 취급에 따라 3개 출판사는 6개 또는 7개의 단원에 각각 한 단위씩을 배정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표 III-1> 출판사별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안전교육 단원의 구성

| 출판사 | 학 년 | 단 원 명 | 주 제 | 쪽 수 |
|--------|-----|-------------------|---|--------|
| 東京書籍 | 4 | 4. 생활을 지키다. | ① 화재로부터 생활을 지키다 ②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생활을 지키다 | 2-33 |
| 日本文教出版 | 3 | 3. 안전한 생활을 지키는 일 | ①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은 ② 안전한 마을을 목표로 | 80-115 |
| 光村図書出版 | 4 | 5. 안전, 안심, 우리의 생활 | ① 화재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까? ②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까? | 47~80 |

동경서적, 문교출판과 광촌도서의 안전 관련 단원의 순서와 배정 학년이 다른 이유는 일본의 사회과는 우리와 다르게 교과서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학교가 2년간을 바라보고, 지역의 실태에 관한 내용의 순서나 교재의 선정 등을 공부하는 것 등, 지역에 밀착된 학습이 탄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2년분의 내용을 정리하여 목표로 하기 때문에(社會認知教育會, 2012) 일부 학년군제를 도입하여 단원의 배정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경서적은 31쪽, 문교출판은 36쪽, 광촌도서는 34쪽으로 내용의 분량에 큰 차이는 없다. 동경서적의 경우 2주제 19차시로 배당되어 있다. 교과서 마다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자체에 큰 차이는 없으며 II-3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재난 영역의 화재와 사고 영역의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고 있다. 광촌도서와 문교출판의 단위 소개의 내용을 통해 개요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화재나 사고로부터, 우리들이 사는 마을을 지켜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 구조에 대해 조사해보고, 우리
 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石毛直道 外 9人, 2011).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생각해보자(朝倉啓爾 外 33人, 2011).

가. 1주제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은」의 내용 전개

광촌도서(2011)의 방재와 관련된 1주제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은」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은」 학습 내용

| 학습 차시 명 | 학습문제 | 주요 학습 내용 | 자료 | 쪽 |
|------------------|-------------------------------------|---|--|--------|
|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은 | ·화재 현장의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써보자. | ·도입, 본 학습을 위한 문제 인식 ·주요 의문: 소방차는 어디에서 올까/경찰관은 왜 보이는걸까 등 | ·화재 현장의 사진 | 48 ~49 |
| 만약 화재가 일어나면 | ·자료로부터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학습문제를 생각해보자. | ·본 주제 학습 ·주요 의문: 화재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이나 생활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원인 그래프 | 50 ~51 |
| 학교의 화재에 대한 알아보자 | ·화재를 예방하는 학교의 시설을 조사해보자 | ·학교의 방화시설 조사: 연기감지기, 화재수신기, 방송시설,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구조상자, 수영장 등 | ·학교 내의 방화시설 층별 그림지도 | 52 ~53 |
| 만약 학교에 화재가 일어나면 | ·학교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일을 조사해보자 |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소방서의 출동계획 및 소방차의 배치 예 학습 ·소방차가 오기 전 학교 내에서 행동 계획 학습 ·소방관이 화재로 출동할 때 이외의 하는 일 예상 | ·오노미치시의 소방서 현황지도 ·오노미치시 관내 학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출동 계획 ·학교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행동계획 ·학교 건물에 배치되는 소방차의 위치 | 54 ~55 |
| 소방서로 견학을 갔어요 | ·소방서에 확인해서 예상을 확인해보자 | ·평소 소방관이 하는 일 알아보기: 체력훈련, 도구점검, 방수훈련 ·소방관의 하루와 인터뷰를 통해 평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 확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관의 출동 요령 확인 | ·소방관 나카하라씨의 하루 일과표 ·소방관 나카하라씨의 사진과 인터뷰 ·소방훈련 사진 | 56 ~57 |

| | | | | |
|--------------------------|-----------------------------------|---|---|-----------|
| 119번은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 | ·119번호의 조직을 조사해보자. | ·119 신고 시 소방국의 통신지령과, 방송국, 신문사, 시청, 병원, 소방서, 소방단, 경찰서, 수도권, 가스회사, 전력회사의 연락망 학습 ·119번은 소방서가 아닌 소방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기관이 화재 시 구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 | ·119번호 신고시 기관별 역할 삽화 ·통신지휘과의 요시다씨 인터뷰 ·오노미치시 구급차의 출동건수 그래프 | 58 ~59 |
| 화재의 준비는, 마을 속에서도 하고 있을까? | ·「소방단」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 ·마을 사람들도 방화단을 조직하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역할이 있고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 ·마을 속에 있는 소화전, 방화탱크 등의 시설 확인 | ·소방단 히가시씨의 인터뷰 ·학교 부근의 방화시설 그림지도 ·방화전 사진 | 60 ~61 |
| 우리들은 어떻게 화재로부터 지켜지고 있을까? |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해보자. | ·화재를 막기 위하여 준비할 것은 없는지,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 ·화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기관의 역할을 정리해보기 ·우리집에서는 재해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지진이나 수해의 대비도 알아보기 | ·119번호를 이용하는 방법 ·피난 훈련의 약속 「밀·말·띠·돌」 ·오노미치시의 피난장소·수방창고·라디오 사진 | 62 ~63 |

학습의 전개는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를 무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4학년의 학습이 학습자의 직접 생활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습을 중핵적인 학습 내용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본 사회과 교과서의 3·4학년은 특정 지역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해당 단위에서는 오노미치시를 주된 무대로 현지조사를 통해 적확하게 실측하고 구성·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학습의 큰 흐름은 화재와 관련된 문제를 각자의 경험에 따라 확인하고 화재가 났을 때 학교에서는, 소방서에서는,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화재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으로 문제해결적인 학습의 과정을 따라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적인 학습이란 교과서 내용을 공통 지식으로 해서, 어린이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발굴하고, 꺼내는 것으로, 공공의 지식과 개별적·경험적 지식을 어린이 하나하나가 자신의 세계에서 종합해가기 위한 조력이 되는 수업 방법이다(社會認知教育會, 2010). 수업 전개의 중심 활동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토의학습·조사학습·견학학습·방문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안전·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은 실제 수업에 있어서 현장감을 높이고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3·4학년 사회과 전체의 특징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막연히 가지는 것 보다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실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것까지도 다루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부적인 면을 보인다. 예를 들어 「만약 학교에 화재가 일어나면」이라는 차시에서는 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오노미치 소방서에서는 4분, 오노미치니시소방서에서는 6분, 무카이시마분서에서는 9분이 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는 9대로 그 종류는 지휘차 1대, 펌프차 3대, 구조공작차 1대, 사다리차 1대, 탱크차 1대,

구급차 2대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지도에서 어디에 각 차량이 배치되는지까지도 다루고 있다. 또 「소방서로 견학을 갔어요」에서는 소방관 나카하라씨의 오전 8: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30분까지의 시간별 일과를 다루고 있으며 자료로 제시된 사진에서 바지와 신발이 함께 놓여져 있는 이유에 대하여 금방 소방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그렇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등 화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각 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인물(나카하라씨 등)의 사진과 인터뷰를 수록하여 입장감을 높이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적인 학습의 내용은 소학교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0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관계 기관의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체제, 사고 방지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위험을 예측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 가능한 능력」의 육성은 소극적이라는 日本社会科教育学会(2012)의 지적 역시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물론 그러한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점은 대체로 맞다고 보여지나 실제로 그러한 능력은 사회과에서 어떤 식으로 길러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위와 같이 각 기관이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세부적인 내용의 제시를 통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방을 위한 사회의 노력에 대하여 이해하고 사회 안전망에 대하여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된 기관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기관의 노력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그만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학교에 화재가 일어나면」의 선생님의 대화 중 다음의 말은 인상적이다. “화재가 일어나면, 우선 119번으로 전화합니다. 모두를 대피시키면서, 소화기 등을 사용해서 초기 소화를 합니다. 교직원들도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있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내용에 대한 파급의 범위는 학생에게만 한정되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관들이 1분 이내에 출동하는 과정, 소방차가 4-9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정확한 언급 등은 마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 2주제 「안전한 마을을 목표로」의 내용 전개

광촌도서(2011)의 방재와 관련된 1주제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은」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은」 학습 내용

| 학습 차시 명 | 학습문제 | 주요 학습 내용 | 자료 | 쪽 |
|-------------|--------------------------------------|--|---|-----------|
| 안전한 마을을 목표로 | ·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써보자. | · 도입, 본 학습을 위한 문제 인식 · 주요 의문: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경찰관인가?/구급차, 소방차는 왜 있는가? · 「섬뜩(ひやり)·깜짝(はっと)」 하는 기분을 느낀 경우를 적어보자 | · 사고 현장의 사진 · 오노미치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히로시마현 경찰본부) | 64 ~65 |

| | | | | |
|--------------------------|----------------------------------|---|--|------------|
|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걸까? |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 | ·본 주제학습 ·주요 의문: 매년 죽는 사람이 많은가?/사고를 막는 활동을 마을 사람들은 하지 않는가?/사고가 많은 시간대에 우리들과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교통사고는 없어질 수 없는가?/우리들의 학교나 통학로는 안전한가?/교통사고를 막는 준비나 활동은 없는가? | ·오노미치시의 시간대별 교통사고의 건수 | 66 ~67 |
| 학교 주변은 안전할까? | ·학교의 주변을 조사하고 사고를 막는 시설을 찾아보자. | ·학교 주변의 사고 예방 시설 조사: 신호, 표지, 커브미러, 가드레일, 가드파이프, 횡단보도, 차단기, 보도교, 점자블록 ·각 시설의 역할 학습 | ·학교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 그림지도 ·예방 시설의 사진 | 68 ~69 |
|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보되는 구조를 조사해보자. | ·112번으로 사고를 통보했을 때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교통관제센터의 연락망 학습 ·교통사고를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학습 | ·통신지령실에 근무하는 분의 이야기 ·통신지령실의 사진 | 70 ~71 |
| 파출소에 없을 때, 경찰관은 어디에 있을까? | ·경찰관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조사해보자. |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의 노력 조사: 순찰/ 방법 연락, 어른신의 집 방문 | ·파출소의 부재연락표 사진 ·오노미치시에서 일어나는 탈 것의 도난과 날치기의 횡수(히로시마현경본부) ·파출소 경찰관의 인터뷰 ·경찰관의 하루 일과 그래프 | 72 ~73 |
| 어떤 사람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는걸까? |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경찰의 협력을 조사해보자.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리 조사: 통학로 지킴이, 어린이 110번의 집, 안전을 지키는 시설 등 | ·어린이 110번의 집 사진 ·커브를 만들어둔 도로 사진(가나자와현 요코하마시) ·통학로 지킴이 사진 | 74 ~75 |
| 안전을 위한 목표를 생각해보자 | ·자신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방법을 생각해보자. |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생각해보기 ·안전을 위한 스스로의 목표 세우기 ·「섬뜩·깜짝」하지 않는 생활을 위해 가능한 것 써보기 |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약속 「따·모·조·큰·달」 | 76~ 77쪽 |

학습의 큰 흐름은 오노미치시를 무대로 하여 주제 1과 유사하게 흘러간다. 문제해결적인 학습의 과정에 따라 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으며 경찰관과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1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목표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교 주변은 안전할까?」에서

‘이 곳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표지에 대해 아무 곳이나 주차하고 있는 차를 피하게 되면 앞에서 갑자기 오는 차가 올 수 있어서 무섭다(위험하다)라는 학생의 답변은 의미만 생각했을 때 그냥 넘어가기 쉬운 표지판의 존재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 「파출소에 없을 때, 경찰관은 어디에 있을까?」에서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종종 부재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제 1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학습을 위해 경찰, 지역 사람들의 협력,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주제 1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주제 1이 방재교육의 화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주제 2의 경우 사고에 있어 교통사고 뿐 아니라 방법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물론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日本社会科教育学会(2012)의 지적에서처럼 지나치게 편향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일본에서의 안전교육은 어린이 스스로의 행동이나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학교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생활 지도 및 피난 훈련 외에 교과학습이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교육의 내용에 있어 자연재해·재난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재해·재난의 예방과 관련된 방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방재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육성해야 할 것으로 목표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예측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방재교육은 교과학습 내에서 생활과, 도덕, 특별활동, 사회과, 이과, 가정과, 체육과에서 나누어 가르쳐지고 있다. 사회과의 경우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의 대책을 중심으로 안전·방재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학교의 3·4학년에서 특히 중시되어 가르쳐지고 있다. 3·4학년은 지역학습의 틀 속에서 화재나 교통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궁리나,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궁리와 노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일본 사회과 안전·방재교육에 있어서 日本社会科教育学会(2012)에서는 내용을 다루며 재해·사고에 있어서 실제 수업에서는 화재나 교통사고의 방지에 편향되어 교육된다는 점, 복수의 교과가 안전·방재교육을 담당함에 있어 사회과와 다른 교과 간의 역할의 분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회과에서는 「위험을 예측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 가능한 능력」의 육성은 소극적이라는 한계와 과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추후 우리나라의 사회과에서도 안전·방재교육을 논의하게 된다면 검토해볼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안전·방재교육 관련 단원은 문제해결적인 학습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재해에 있어서 화재를, 사고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한 단원에서 두 주제로 나누어 다루고 있으며 학습의 큰 흐름은 특정 지역을 무대로 하여 재해·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재

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나 궁금한 것을 살펴보고, 학교의 노력·직접 관련 기관의 노력·지역사회의 노력을 살펴본 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안전·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인 학습의 내용은 관계 기관의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체제, 사고 방지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방을 위한 사회의 공리를 이해하고 사회 안전망에 대하여 안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사나 관계된 기관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 하고 있어 내용에 대한 파급이 사회 전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언

정창호(2014)는 ‘위험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성찰하며 파국적인 위난과 위험을 완전히 통제, 제거 할 수 있다는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서 상시적인 위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어난 사건·사고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만약, 우리 사회가 위험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민감해졌다면 하나의 사고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오래전부터 인적 재해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상존해있음을 생각해본다면 안전·방재 교육을 강화하려는 현재의 기초는 타당해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도 근래 안전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짐에 있어서 안전을 또 다른 교과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교과와 형태로 가르쳐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안전이라는 내용이 교과로서 전수되어야만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존의 교과 영역에서의 통합이라는 형태로 충분히 가르쳐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과 역시 안전·방재 교육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 교과간의 검토 후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전·방재교육이 교과내 통합의 형태로 추진되었을 때, 사회과도 충분히 그 역할의 하나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추후 사회과에서 안전·방재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제 2012-14호[별책 7].
- 교육부(2014),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2014), **활동결과보고서 1**.
- 김지영(2009).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실(2004), **서울 초등학교의 안전 교육 현황과 교내 안전 사고 실태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현, 김기식(1999), 사회과에서 새로운 안전교육 방향의 모색.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14, pp.49-92.
- 박지현(2013), **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의 이론적 분석 및 제언**,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천(1995),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사회과 수업논리의 탐색: 일본의 최근 사회과수업론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28, pp.29-49.
- 송미경, 이정은, 문선영, 양숙자, 김신정(2005),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6(2), pp.205-220.
- 안순화(2005), **학교안전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 사회과에서 적용 모색**,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화, 박계호(2003), **어린이 지도자를 위한 안전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 이명선(2001), **안전보건학**, 서울: 계축문화사.
- 이민부(2014), 재난대비 교육을 위한 국토교육 강화방안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장은숙(2011), 일본의 방재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1), pp.127-136.
- 정창호(2014), ‘위험사회’에서의 교육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2), pp.1-22.
- 천호성(2011), 한일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1), pp.137-156.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2012.12.13) 【별책 1】 총론
- 통계청(2008),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비교**[보도자료].
- 통계청(2013), **2013년 사망원인통계**[보도자료].
- 文部科学省(1996), 学校等の防災体制の充実について 第二次報告.
- 文部科学省(2008), 「小学校学習指導要領」.
- 文部科学省(2011), 「東日本大地震を受けた防災教育・防災 管理に関する有識者会議」中間とりまとめ (案) .
- 文部科学省(2012), 学校安全の推進に関する計画.
- 日本社会科教育学会(2012), 新版 社会教科教育 事典, ぎょうせい.
- 社会認知教育会(2010), 小学校社会科教育, 学術図書出版社.
- 荒谷 美津子 他 8人(2012), 学校における安全教育 : 幼小中の体系的学校保健安全教育プログラム作成への課題, 広島大学 学部・附属学校共同研究紀要, 40, pp. 195-200.

石毛直道 外 9人(2011), 社会 3・4下, 光村図書出版.

北 俊夫・佐藤学・吉田伸之 外 38人(2011), 新しい社会3・4下, 東京書籍.

加藤幸次・明石要一 外 33人(2011), 小学生の社会 3・4上 : わたしたちのすむ土地, 日本文教出版.